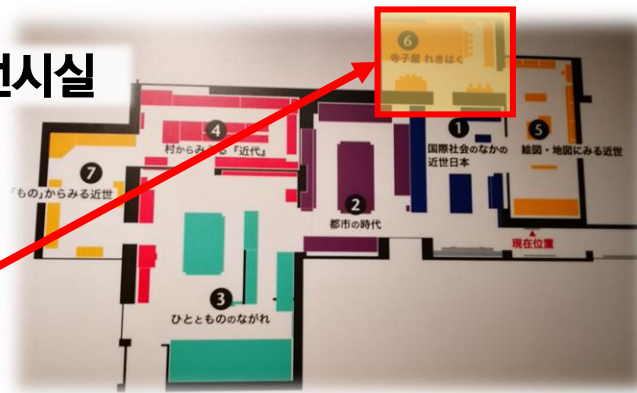


헤이안 시대(794~1185년) 옛 일본인들의 한문 읽기

제 2 전시실

제 3 전시실



여기예요!!

전부 보셨다면, 제 3 전시실의 '레키하쿠 테라코야(歴博寺子屋)'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?

'테라코야(寺子屋)'는 에도시대에 초등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던 곳으로, 여기서 에도시대의 초등학생들이 배우던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!

그 중에서도 추천하고 싶은 것은 옛날의 히라가나를 보면서 써보는 코너예요.

혹시 관심이 있다면, 다시 전시실로 돌아가 옛 카타카나 표와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요?



한자가 일본에 언제 전래되었는지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. 하지만, 한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카타카나와 히라가나, 흔히 말하는 가나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후, 한문을 읽는 방법 중 하나인 훈독이 발달하였으며, '오코토텐'이 등장한 뒤에는 한자 읽기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.

여러분들은 이 가나문자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, 헤이안 시대에는 무엇에 사용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?

아마도, "어차피 한자만 딱딱하게 써 있겠지. 재미없어", "에엑. 어려워 보이는데" 라면서 안 보고 지나칠 수도 있을거예요. 그래도 한번 본다면 신기하다고 느낄지도 모르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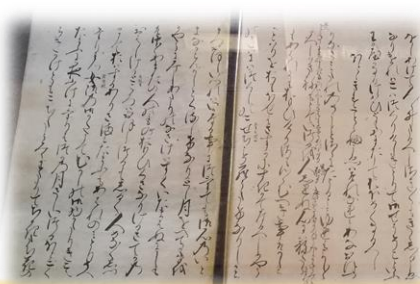
그러면 함께 보러 가 볼까요?

여기예요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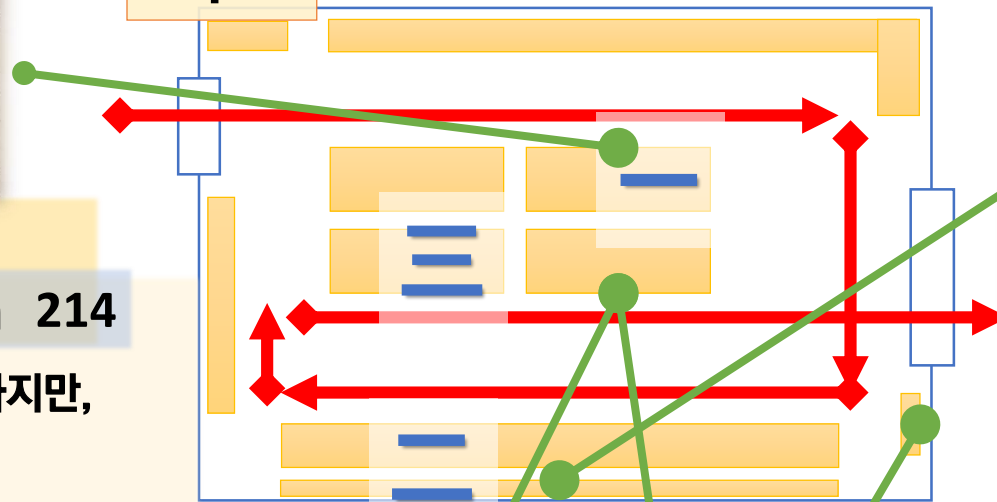


매표소에서 음성안내기(가이드 리시버)를 받아주세요.





지도



1. 히라가나 (ひらがな) 란 무엇일까요?

🎧 214

지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쓰고 있는 히라가나지만, 옛날에도 꼭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.

옛날에 히라가나는 여성적이고 감정적인 문자로 주로 문학작품에서 사용되었어요.

히나가라를 사용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「겐지모노가타리(源氏物語)」가 있어요.

문자가 곡선처럼 보이는 건 한자를 쓰던 방법 중 하나인 초서체를 간략화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.

2. 카타카나 (カタカナ) 란 무엇일까요?

모퉁이를 돌아 왼쪽을 보면 아까와는 다른 문자가 보이죠? 이것이 바로 카타카나예요.

문자가 딱딱한 느낌이 드는 건 *만엽가나(万葉仮名)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. 쉽게 말하자면, 카타카나는 한자의 일부분을 따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.

헤이안 시대 초기까지는 그 모양이 달랐지만, 중기 이후에는 점점 그 모양이 굳어졌어요.

*한자의 음독을 한자로 쓴 것으로 「만엽집(万葉集)」에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만엽가나라고 불림



3. 헤이안 시대에는 어떻게 한문을 읽었을까요?

🎧 212,213

*奈良時代, 710~794년

*나라시대까지는 한문을 읽을 때에는 '카에리요미(返り読み)'라고 해서 주어, 목적어, 보어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읽는 방법을 썼어요.

*平安時代, 794~1185년

헤이안 시대에 들어서는 만엽가나를 붙여서 읽었지만, 카타카나가 등장하고 나서는 가나문자(仮名文字)나 '오코토텐(をこと点)' 을 붙여서 읽기 시작했어요.

이 '오코토텐'에는 「・」, 「|」, 「—」, 「>」 등의 부호가 있는데, 이를 한자의 주변에 붙여서 읽는 순서와 조사 등을 나타내는데 사용했어요.

또한 그 표현 방식은 다양했기 때문에, 어떤 책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단서로도 사용되었어요.

그러면, 한번 실제로 쓰여진 예를 확인하러 가볼까요?

*원문



*여기에는 조사 외에도 읽는 순서와 방법을 나타내는 부호, 음독으로 이어서 읽는 부호, 인명을 나타내는 부호 등이 있어요. 읽어보면서 찾아보아요.

*사마천의 「사기」, 「효경본기」 제 11권 中

해석

효경황제에 이르러 다시는 이성(異姓) 제후의 반역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, 조착(晁錯)이 제후의 봉국을 빼앗자...

